

출장보고서

I. 출장개요

1. 출장자: 임혜준 부연구위원
2. 출장기간: 2007. 7. 14 - 22 (7박 9일)
3. 출장지: 스위스 제네바
4. 출장목적: WTO/DDA 무역원활화 협상 참가

II. 출장일정

일자	행선지	활동사항	비고
2007. 7. 14	인천출발 제네바도착		
2007. 7. 15	제네바	사전 대책회의 참석	
2007. 7. 16 - 20	제네바	협상회의 참석	
2007. 7. 21 - 22	제네바출발 인천도착		

III. 활동 내용

1. 협상회의 진행 사항

- ☐ 이번 협상회의는 7월 16-20일간 진행되었으며 의장주제 전체 회의와 회원국 주도 비공식회의로 나누어 진행되었음
- ☐ 의장 주제 전체회의에서는 터키, 미국, 코어그룹 등의 신규 제안서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며, 우리나라, 홍콩, 인도, 캐나다 등 제안서 제출 국가 주도로 비공식 회의도 진행되었음

- 터키는 사전판정(W/120/Rev.1), 터키 및 조지아(W/146)는 육상 통과화물 쿼터, 미국은 특송화물(W/144/Rev.1)에 대해 제안서를 신규 제출함
 - 코어그룹은 TA/CB 관련 기존 제안서(W/142)보다 개도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한 새로운 제안서(W/147)를 제출함
 - 우리나라는 싱글윈도우 제안서 관련 비공식 회의를 소집하여 관세청의 싱글윈도우 경험사례를 발표한 뒤 우리나라 제안서 관련 회원국의 의견을 수집함
 - 한편 홍콩은 GATT 8조와 10조 관련 제안서에 대해, 캐나다는 국경 세관협력(border agency cooperation), 그리고 인도는 세관협력(customs cooperation)에 대해 각각 비공식 회의를 소집하고 회원국의 의견을 수집함
- ☐ 의장 주제 전체회의에서는 GATT 5, 8, 10조, 그리고 세관협력 관련 기존 제안서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짐

2. 종합 관찰 및 평가

- ☐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협정문 조문에 가까운 ‘3세대’ 회원국 제안서에 대한 회원국간 협의가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이루어짐
- ☐ ‘3세대’ 제안서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각 신규 제안서 및 기존 제안서의 의무 조항에 대해 회원국은 수용 가능 및 수용 불가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

정 및 조항 명확화를 요구함

- 향후 회의에서도 기존 제안서에 대한 각 회원국의 입장 표명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제안서 수정 및 명료화 작업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

□ 터키의 사전관정에 대한 신규 제안서는 상당히 구체화된 의무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신축성이 결여 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캐나다와 미국의 기존 제안서(W/125)와의 조율 또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옴

□ 미국의 특송화물에 대한 제안 내용 중 특송화물 업체 지정요건이 지나치게 한정되어 특히 중소기업의 특송화물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진입이 제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지적됨

□ 위험관리 관련 중국의 신규 제안서(W/148)는 위험관리 적용범위, 비차별 의무관련 문구 수정 필요성, 위험관리 기준 구체화 필요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됨

- 우리나라의 위험관리 제안서(W/140)보다 발전되지 못한 형태의 제안서로 판단되며 우리나라 제안서와의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

□ 캐나다의 국경 세관협력 제안서는 세관협력의 의무 구체화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으며 우리나라 싱글윈도우 제안서와의 통합 가능성도 제기됨

□ 우리나라가 주도한 싱글윈도우 관련 비공식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회원국의 의견이 수집되었으며, 이러한 의견을 반영

한 수정 제안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

- 예외적 상황(when deemed necessary)에서 서류의 재제출에 관한 문구 명료화
- 싱글윈도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의무조항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
- 개도국 TA/CB 관련 요소 구체화
- 국내 기관간 조정문제 포함 여부
- 타 제안서와 특히 캐나다 국경간 세관협력 제안서(W/140)와의 관계 설정 및 통합 가능성 확인
- 국제표준 사용 가능성 여부
- IT 없이 싱글윈도우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
- 수출절차 및 통관화물에도 싱글윈도우의 적용 여부

□ 향후 협상회의에서도 기존 제안서에 대한 회원국의 구체적인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므로 우리나라도 그 동안 관심을 갖지 못한 타국 제안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함

-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만큼 무역원활화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그 만큼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무역원활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

-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제안하거나 공동 제안한 의제에 대해서만 주로 관심을 가져 왔지만, GATT 8, 10조 관련 다양한 타국 제안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음

□ 무역원활화의 중요한 의제인 TA/CB에 관한 코어그룹의 신규 제안서는 동 그룹의 기존 제안서보다 후퇴한 즉, 개도국의 입장만을 더욱 강조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선·후진국간 논의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

- 코어그룹의 신규 제안서는 의무 이행 시기 결정 및 이행능력(capacity) 획득 여부판정은 개도국의 재량에 따를 것과, 원활한 TA/CB 제공 관련 WTO내 지원 기구(Trade facilitation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support unit)의 마련, 그리고 분쟁해결을 최후 수단(last resort)으로 삼아야 할 것을 요구함
- EC, 스위스 등 선진국은 전체회의에서 동 제안서가 의무 이행에 관해 개도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다자적 협정의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
- 결론적으로 동 제안서는 코어그룹의 기존 제안서의 입장에서 일보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있을 무역원활화 협상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단케 함. 끝.